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첫 삽

동북권 연결해 ‘강북 전성기’ 연다

동북권 숙원사업 10년 만에 기공
4690억 투입… 총 3.94km 연장
교통망 촘촘해져 시민 편의성↑
오세훈 “강북 잠재력 깨울 열쇠”

2010년부터 서울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연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4km의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기존의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연장선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나뉘어 운행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거장 3개소의 도보 생활권(반경 500m) 내 생활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시민들의 도시철도 접근성이 강화돼 주변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향상된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자가용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이 약 8분 만에 이동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시간이 최대 17분까지 단축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상 구조물 최소화로 도시환경 미관 개선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

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정거장과 환기구를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모든 역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설계를 도입한다.

더불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개착을 최대한 줄이고, 터널과 정거장을 병행 시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중 교통·생활 불편을 해소해 인근 지역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도시철도가 달지 않던 동북권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여러분이 ‘강북 전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제8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IUT 학위수여식… 307명 졸업

국내 최초 대학교육 시스템 수출 사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8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UT)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위를 받은 307명의 졸업생과 가족,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213명은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4+0) 방식으로, 경영물류학부 75명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3+1)을 통해 인하대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19명의 MBA 학생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1+1)을 이수해 인하대 경영대학원 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을 비롯해 정석인 하학원 성용락 이사장, 김윤휘 관리이사, 김교홍·양문석·진종오 국회의원, 원

도연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와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기술부장관 등도 IUT를 찾아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IUT는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만들어졌다. 국내 최초로 ‘3+1 방문 교육’, ‘4+0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하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아래 2018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이번 학위수여식까지 2300여명이 학생이 IUT에서 공부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했다.

졸업생 대부분이 현지 유명 IT기업, 국영기업, 정부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어 IUT는 현지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홍수 대비’ 포천 추동천 정비사업

제방·교량 설치 등 0.63km 구간 정비

경기도가 포천시 추동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정비사업은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흐르는 추동천 일원 총연장 0.6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1.0km ▲교량 1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사업비는 도비 88억 원으로 ▲공사비 52억 원 ▲보상비 22억 원 ▲감리비 7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 원 등이다. 공사는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동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 2024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극한 호우 발생시에도 추동천의 치수능력 및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창동·상계, 미래산업·녹지 품은 만능도시로

서울시, 동북권 새 비전 소개
창동차량기지,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중랑천 일대, 수변감성도시로 꾸며

서울시가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던 창동·상계 일대에 디지털바이오 산업과 수변도시가 결합된 새로운 경제·생활권 청사진을 공개했다. 창동차량기지가 위치한 노원 도심의 대규모 저이용 부지는 서울 바이오 산업축의 전략 거점 ‘S-DBC(Seoul-Digital Bio City)’로, 중랑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도시 모델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S-DBC’를 주제로 개최한 ‘S-DBC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첨단산업·문화·녹지가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의 새 비전을 소개했다.

◆ 창동차량기지→ 메가 바이오 벨트

내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하면 도심 한복판 입지임에도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창동차량기지



S-DBC 전경. /서울시

부지가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내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한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S-DBC를 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이를 홍콩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및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

◆ 중랑천 일대, 워터프론트로 도약

중랑천 인근은 일지리와 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워터프론트로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및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가 거듭난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여가·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함으로써 중랑천 일대 유동 인구를 활성화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 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S-DBC는 홍릉에서 창동·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중국, 서해·보하이해 실탄훈련…對 일본 견제 수위 높여
▲미국·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공동성명

/사진 뉴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2인자 거냥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5명 사망
▲미국·대만 해병대 광서 1개월 합동훈련…중국 향한 ‘견제구’

▲미국, 대만에 관세협상 두고 ‘4000억 달러’ 투자 요구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대만서 ‘110km’